

복음, 유한에서 무한으로의 몰입

| 김홍호 | 이화여대 명예철학 박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근본경험을 통해 '자기'라는 한정된 세계를 넘어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뚫고 들어가는 근본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편집자 주).



로마서 1:2~15

이 복음은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폭음을 듣게 되는데 나도 내 방에 앉아 있으면 가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근에 들 깨는 곳이 있나, 대포를 쏘는 연습을 하나, 여러 번 의심은 했는데, 지난 주 금요일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서울 시내를 밤낮 정찰하는 비행기가 보통은 음속 이하로 날아다니는데 음속 이상으로 날게 되면 그런 폭음이 난다는 겁니다. 음속은 한 시간에 1,200km를 달리는데 비행기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 대포알 터지는 소리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음속이라는 한계가 있나 봅니다.

복음이란 별게 아니고, 이 세상과 하늘나라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탁 터뜨리고 나갈 때 나오는 소리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딪치면 그 이상 더 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100m 달리기에 10 라는 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라톤하면 그곳에도 역시 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 한계를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때 수직으로 바로 뜨는데, 왜냐하면 낮게 뜨면 공기의 압력으로 기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1 시간이나 1시간 30분 동안 떠다니려면 기름이 15 내지 20드림이 든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 1년 쓰는 기름이 20드림인데, 우리 집에서 1년 쓰는 기름을 그 비행기는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나 챌린저니 하는 우주선이 올라가는데는 1만 드림이나 소모된답니다. 1만 드림이면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의 기름을 쓰고 일단 올라만 가면 기름이 한 방울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진공 상태라 작은 공기층 하나만 가지고도 날아갈 수 있으니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아도 기름이 소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는 한계를 넘어선 세계, 무한한 세계라고 하지요. 사람은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로 가야 그곳에 자유가 있지, 무한한 세계가 없으면 자유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전에 사도는 죽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사람은 귀가 멀고, 말을 못하고 눈이 머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계선을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은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천사를 만났을 때 그만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복음에는 그런 증거가 여럿이며, 하여튼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였어요. 무한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로 들려오는 소리죠. 이런 근본경험을 예수님께서서는 3년 동안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근본경험을 몇 십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은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뚫고 나가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것은 각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판소리나 창(唱)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목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를 지나면 하루 종일 창을 해도 힘들지가 않다고 합니다. 결국 한계를 넘어선 것이지요.

작년에 김자경 씨가 독창회를 한다고 해요. 그때 그분은 65세라서

노래를 부르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더욱이 감기까지 걸렸으니 아주 불안해서 안 갈까 그랬는데 자꾸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목소리를 끌어올릴 때 목소리가 가늘어지더니 그냥 올라갑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아마 발성법(發聲法)이라는 것인가 봅니다. 비록 65세지만 틀린 것 하나 없이 앵콜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무한히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무중력 상태까지 도달해서 그곳에서는 자유로운가 봅니다. 그 사람 70세가 되어도 또 할 겁니다. 그 벽을 뚫어 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발성법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자기의 발성법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지요.

내가 붓글씨 쓰는 얘기를 하겠어요. 대나무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려 놓았는지 꽤 잘 그렸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그려 보라고 해서 그렸더니 잘 안 됐어요. 무엇이 안 됐나 했더니 선생님 말씀이 “대나무 잎을 그릴 때 그리지 말고 글자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속기(俗氣)를 빼야 되는데 글자를 써야만 누구나 속기를 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까 음속을 넘어섰다고 그랬는데, 세속(世俗)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을 넘어서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이란 게 뭐냐. 바로 속기입니다. 예술의 세계에서든 자꾸 대나무를 쳐 가면 속기가 빠집니다. 나중에는 아무 속기 없는 완전무결한 대나무가 나옵니다. 하나의 창작의 세계, 창작의 세계란 역시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런 세계가 나옵니다. 내가 초서를 끝냈다 할 때도 초서에는 법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고는 초서를 끝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체득되는 순간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 법을 체득하기까지는 어려움을 줄 압니다. 일단 그

법을 체득하고 나면 자연히 돈은 굴러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자유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 자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떤 방면이든 자유를 갖게 되는데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세계도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그 한계를 넘어가려면 법칙이란 것을 가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주선을 쏠 때도 아무 곳에서나 쏘면 무슨 벽 같은 것에 걸려 다 타버린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없는 곳은 남극과 북극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으로 향해 쏘아서 올리고,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꼭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을 때도 목덜미를 잡아야지 다른 데는 잡으면 할껍니다. 토끼 역시 귀를 잡아야 하듯이 법이란 게 꼭 있습니다. 요령이란 것과 같은 말입니다. 동물을 길들일 때도 이 요령을 가지고 하면 쉽습니다. 사람과 같이 살 때도 언제나 요령이 필요합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살 때도 남자의 장점, 여자의 장점을 붙잡으면 됩니다.

옛 사람들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했는데, 그런 남자의 장점이라고 할까 본심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붙잡고, 여자의 장점과 본성을 아는 것이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요령을 붙잡을 줄 알면 그게 지혜다 그겁니다. 그것 없이는 이 한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풍덩 빠지지만 그러나 조오련 선수는 부산에서 현해탄을 건 듯이 그 법이라는 것을 알면 무중력 상태처럼 문제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 남자들은 하루 종일 창 하나만 가지고 물 위를 떠다니고 있어요. 해녀들은 바가지 같은 것을 타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바야흐로 한계선을 넘어선 것

과학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철학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종교적·예술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 세계가 아주 행복한 세계입니다.

이예요. 무엇이든지 한계선을 넘어선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 세계에서 속기를 빼버려야 순수한 예술세계로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세속의 속기를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에도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복음 혹은 진리라고도 하는데 이 복음, 진리,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넘어서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서 하늘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음속을 넘어가는 세계가 무슨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00km를 넘어가면 바로 여기가 음속을 넘어서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것, 과학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철학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종교적·예술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 세계가 아주 행복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할 때는 행복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행복한 세계에서 오는 소식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듯이 ‘기가 뿜어 나온다’ 그것 역시 유한한 세계가 무한한 세계의 한계를 터뜨리고 기가 뿜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터뜨리는 것이 없으면 기쁨이란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거쳐 대학에 입학할 때 기쁜 것처럼 기쁨이란 한계를 터뜨

릴 때 기쁜 것이지, 한계 안에 있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 괴로운 세계를 죄악의 세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난 그래서 과학적인 자유, 철학적인 자유, 예술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야만 적어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이 있고, 정치적인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이, 문화적인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이, 사회적인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자유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나 하는 것이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이는 촌사람이었으니 서울에 가고 싶은 것이었겠지요. 역시 땅 끝까지 요새말로 말하면 대서양 끝, 스페인까지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나는 꼭 너에게 가고 싶다. 왜냐하면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넘어가는 방법-즉 이게 복음인데-을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나도 지금 몇 학생에게 붓글씨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붓글씨를 더 배웠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것이 사람의 인정입니다.

바울도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한번 나가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유한의 세계를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번 나와 보니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전에 감옥에서 탈옥했다가 다시 들어간 도둑은 나왔을 때 참 좋았을 거예요. 만약 그 도둑이 나오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가 그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어떤지

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나오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나도 붓글씨 쓰는 방법을 확실히 압니다. 그대로만 쓰면 되듯이 바울도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나 문화인이든, 야만인이든, 교양이 있는 사람이건, 교양이 없는 사람이건 간에 말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리하여 스페인이라는 땅 끝까지 가서 이 방법을 가르쳐주리라고 열의를 냈던 것입니다.

요전에는 로마서 1장 1절을 얘기했지만, 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이 방법(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3절에 보면 복음이란 것이 별게 아니라 무한의 세계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며, 무한의 세계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계는 다른 게 아니라 우주선이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궤도를 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누군가 벽을 뚫을 것이다 그런 것이, 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 벽을 뚫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벽을 뚫었으니까 이제 됐다, 산 속에 길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길을 뚫었으니 이제 됐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에 대한 확신이 선 것입니다.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라는 사람이 달에 올라갔으니 이제 누구나 달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나? 우주선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쏘아야 됩니다. 그런데 쏘아서 올라간다는 것을 바울은 3절에서 부활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승천이란 쉽게 말하면 달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날아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죠. 그제 3절의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성(人性)으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고, 기름이며, 신성(神性)으로 말하면 부활 승천이고, 날아 올라간다는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인성이란 말 대신 ‘자가의 보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기름으로서 이것으로 날아 올라간다는 거죠.

날아 올라가면, 한계를 깨뜨리고 올라가면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인가. 바로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울에 의하면 기름을 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무중력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 말하면 부활 승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 그 얘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폭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란 뭔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결론은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유한성을 깨뜨리고 무한한 세계로 몰입해 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기름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씀이며, 십자가의 피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한계를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전집 6권 - 영원을 사는 사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향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김흥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흥호 저 | 사색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애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